

트럼프 “이란 공격, 내주초까지 보류”...중재국들 “진전 없어”

중전 돌파구 미지수...군사옵션도 검토 이란도 양보 없이 ‘버티기’ 입장차 여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동맹국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명분’을 대면서 이란 추가 공격 계획을 일시 보류했지만,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여전히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트럼프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대규모 공격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전쟁 재개 및 확전은 미국에도 부담스러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중전 전망은 계속 불투명한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중

재국들 관계자들과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서 양측 입장차가 거의 좁혀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핵심 쟁점인 핵 프로그램 폐쇄 또는 장기 중단 요구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대이란 적대행위 중단과 경제 제재 완화, 전쟁 피해 배상, 호르무즈 해협 관리 역할 보장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는 핵개발 문제와 관련해 이란의 대폭 양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트럼프는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공격 유예 선언 배경에 대해 “동맹국들이 협상 타

결 직전이라며 2-3일 정도 아주 짧은 기간 공격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넣지 못하게 된다면, 내 생각에 그들(걸프국)이 만족한다면 우리도 아마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합의가 성사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동시에 ‘핵 무기 포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군사 작전이 이뤄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WSJ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일내 추가 공격을 준비해왔으며, 일부 지역 관계자들은 이르면 다음 주에도 공습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과 동맹국들로부터 제한적인 공격을 승인하는 것이 이란에 협상 타

결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들이 2-3일 정도만 줄 수 있는냐고 했다. 나는 이틀이나 사흘, 아마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다음 주 초 등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란은) 협의를 간청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마도 한 번 큰 타격을 입혀야 할지도 모른다.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아주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협상 시한이 길지 않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가 표면적으로는 걸프국들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이번 공격 유예 선언은 미국 필요에 따른 결정이라는 분석

이 우세하다. 확전 시 고유가 심화 및 물가 상승을 피하기 어렵고, 이는 미국 내 전쟁 피로감과 반발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 상황에서 이란 역시 협상 테이블에서 ‘양보’보다는 최선의 성과를 챙기기 위한 ‘버티기’에 나선 듯한 모습이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란이 협의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합의문에 실제 서명하기 전까지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일각에서 거론된 ‘러시아의 이란 농축 우라늄 인수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 정부의 계획이 아니며, 과거에도 그런 계획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REUTERS-연합뉴스

시진핑, 푸틴에 “수많은 시련·타격에도 협력 심화”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 연장 동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동 전쟁 중단과 이를 통한 에너지 공급 안정을 강조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과 걸프 지역 상황이 전쟁에서 평화로 전환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면적인 전쟁 중단은 한시도 미룰 수 없고 전쟁 재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협상을 견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며 “전쟁이 조속히

진정되는 것은 에너지 공급의 안정, 산업망·공급망의 원활한 흐름, 그리고 국제 무역 질서에 대한 교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역설했다.

시 주석은 또 혼란스러운 국제정세에도 중러 협력과 전략적 우호 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올해는 중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이자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 5주년”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는 수많은 시련과 타격에도 굳건하게 정치적 상호 신뢰와 전략적 협력을 끊임없이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정상은 회담을 통해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연장하기로 동의했으며, 양측이 정상

간의 공감대를 잘 이행해 상호 신뢰 기반과 협력 성과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시 주석은 “현재 국제 정세는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일방적 패권주의의 역류가 횡행하고 있다”며 “평화를 추구하고 발전을 도모하며 협력을 촉진하는 것은 여전히 민심이 향하는 방향이자 대세”라고 덧붙였다.

양자회담 후 이어진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도 그는 “쌍방의 정치적 상호 신뢰가 끊임없이 심화하고, 경제무역·투자·에너지·과학기술·인문·지방 간 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민심 소통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중·남부 폭우 지속 최소 21명 사망

당국, 긴급 대응·구조 작업

중국 남부와 중부 전역에서 폭우가 이어지면서 최소 2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중국 기상당국 발표 등을 인용해 지난 16일부터 계속된 호우로 장시·안후이·후난·후베이·구이저우·광시 좡족자치구·광둥·하이난 등 일대에서 산사태, 침수, 하천 범람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남서부 광시 지역에서는 지난 16일 밤 폭우 속에 농장 노동자 15명을 태운 픽업트럭이 교량을 건너던 중 급류에 휩쓸려 하천으로 추락했다. 현재까지 10명의 사망자가 확인됐고, 당국은 나머지 실종자를 수색 중이다.

남서부 구이저우에서 4명이 사망했다. 남부 후난에서 4명, 중부 후베이의 저지대 마을에

서 3명이 각각 숨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상점이 폐쇄됐으며, 교통과 전력 공급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또 중국 정부가 재난 구호를 위해 1억5천만위안(약 332억원)을 긴급 배정했으며, 각 지방 당국은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등 피해 지역에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남부 하이난섬은 19일 지질재해 경보를 발령했으며, 이 섬의 링수이 지역에서는 산비탈이 고속도로 위로 무너져 당국이 해당 지역 주요 도로 여러 곳을 폐쇄했다.

이례적으로 광범위하게 내린 이번 폭우는 벵골만과 남중국해, 태평양에서 유입된 풍부한 수증기가 한데 모여 느리게 이동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중국 기상학자들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온두라스, 산불로 ‘여의도 152배 면적’ 잿더미

이상고온에 ‘화전’ 등 요인

기후변화로 인한 이례적 고온 현상과 화전(火田)으로 촉발된 산불이 중미 국가 온두라스에서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60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했다.

19일(현지시간) 스페인어 매체 인포바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온두라스에선 688건의 산불이 발생해 4만4천ha(헥타르) 이상을 태웠다. 이는 여의도 면적(200ha)의 약 152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지난해 동기 대비 피해 면적이 배 이상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다.

지난 주말에도 전국적으로 15건의 산불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삼림지대인 프랑시스 코 모라산주(州)에서 발생한 산불은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선 지 36시간이 지났지만, 건조한 기후 속 강풍이 이어지면서 불길을 여전히 잡지 못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엘니뇨(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 등의 영향으로 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데다, 통제 범위를 벗어난 ‘논밭 태우기’와 같은 전통적인 농업 관행, 그리고 토지 전용(轉用)을 노린 고의적인 방화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연합뉴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